

‘화려한 선율’ 해남 우수영 들소리...50년만에 복원

제44회 전남민속예술경연대회 ‘대상’ 쾌거 대표 민속놀이 자리매김...문화재 가치 충분 내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전남도 대표 출전

‘강강술래의 고장’ 전남 해남 우수영에 또 하나의 민속놀이가 복원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우수영 지역에 전해지던 남자 들소리 복원을 마치고 들소리를 첫 권으로 하는 해남무형문화유산 총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들소리는 말 그대로 논과 밭에서 들일을 할 때 부르는 소리다.

우수영 들소리는 모뜨는 소리, 모심는 소리, 보리타작소리, 논매는 소리, 장원질 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지역 들소리와는 몇 가지 비교되는 특징이 있다.

판소리 어법을 들소리에 적용해 선율이 화려하고, 꺾는 음을 중심으로 시김새(장식음)를 다양하게 활용해 음악적 짜임새가 두드러진다.

당대 유행하던 사당패 소리를 지역화해 부르고 있는 점 등이 남다른다.

이 때문에 복원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워 전문 소리꾼인 이병재 명창이 들소리를 직접 체득한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리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복원작업이 진행됐다. 우수영 들소리 복원에는 남다른 사연도 숨어있다.

임오로만 간간히 전해지던 우수영 남자 들소리가 세상에 다시 빛을 본 것은 1968년의 들소리 녹음테이프가 44년 만에 우연히 발견되면서부터다.

2013년 전라우수영 들소리 보존회를 구성하고, 박기만 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주민은 매주 월요일이면 문내 경로당에 모여 들소리 복원을 위한 소리 연습에 매진해 왔다.

애초 남자 들소리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계승할만한 사람이 없어 여자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복원작업을 시작한 지 6년째, 우수영 들소리는 지난 9월 열린 제44회 전남민속예



우수영 들소리 시연행사.

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장려상에 이은 최고상 수상으로, 내년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한다.

우수영 들소리 복원을 연구해온 이경엽 목포대 교수는 18일 “우수영 들소리는 우

수영 사람들이 향유해온 음악 문화와 문화적 지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며 또 지정 문화재로서의 승격 가능성까지 내다봤다. 해남 우수영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울돌목 중심으

로 강강술래와 부녀농요, 우수영 줄다리기 등 전통문화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들소리 복원으로 우수영을 대표하는 민속놀이가 더욱 다양해지고, 문화적 전통을 풍부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강진 읍넛골 농촌유학센터 내년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

강진 읍넛골 농촌유학센터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9 농촌유학 지원대상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2천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유학센터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 학교를 살리고, 입시경쟁에 내몰린 도시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대안 및 도·농간 교류의 활성화차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최초의 농촌유학 모델인 읍넛면은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읍넛초등학교를 교사 및 마을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농촌유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학생 수가 47명으로 늘어나 지역학교 및 농촌 활성화에 성공한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또, 지난 2016년 농촌유학센터 건립을 위해 강진군을 주체로 읍넛초등학교, 도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예산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 군 주도로 유학센터를 완공하기도 했으며, 강진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매월 25만원의 유학생 체류비도 지급하고 있다. /강진=윤규진 기자 jin2001@

‘제10회 목포문학상’ 시상식 본상 5편·남도작가상 4편 선정

목포시는 지난 17일 오후 4시 목포문화관에서 ‘제10회 목포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문학상은 목포권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난 소재로 제한해 공모했고 총 404명이 접수했다.

심사결과 본상에는 소설 부문 ‘풍경’(이태순·울산), 시 부문 ‘갯바위를 만조하다’(김형미·광주), 희곡 부문 ‘가마가 있는 마을에 흠이 숨는다’(황석하·서울), 수필 부문 ‘유달산을 걸으며 책 듣기’(양승희·목포), 동시 부문 ‘영산강 이야기’(방승화·광양) 등 5편이 선정됐다.

남도작가상에는 소설 부문 ‘전라도시’(강성오·담양), 시조 부문 ‘목포 어디쯤 아지도’(고정선·광양), 수필 부문 ‘노래에 담긴 목포’(김정순·강진), 동시 부문 ‘까치밥’(이병언·목포) 등 4편이 뽑혔다.

본상은 소설 1천만원, 시·희곡 부문 각 500만원, 수필·동시 부문 각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남도작가상은 소설·시조 부문 각 200만원, 수필·동시 부문 각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무안, 주민참여 제안사업 29억 여원 반영 오는 21일 군의회 최종 의결...내년 1월 중 공개



무안군은 최근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2건에 29억 7천9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의견을 예산편성 반영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보다 14억 9천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민선7기 공약사항인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사업 총 69건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예산편성과정 및 주민제안접수에 대해 심의했다.

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지방분권시대에 주민의 참여가 중요해진 만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 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주민참여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은 오는 21일 무안군의회 제25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해 군 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무안=김수형 기자 ksh@

완도, 2019 주민참여예산 ‘36억원’ 확정

다양한 의견 수렴...재정 민주주의 구현 노력



완도군은 최근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6억원을 확정했다.

완도군은 최근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6억원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9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으며, 150여명의 군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안된 사업 15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지면 구 면대분구 철거 및 소공원 조성’ ‘아늑하고 가고 싶은 곳 작은 도서관 설치’ 등 12건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직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보완 발전시켜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매년 상설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 홍보와 읍면 지역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